

주원산오리

주원산오리 농가협의회 정총·단합대회 개최



주원산오리 농가협의회(회장 박순만)는 지난 10일 진천 한울컨벤션에서 이우진 주원산오리 사장, 최병은 진천축협장, 박종규 농협사료 총청지사장, 홍경표 오리협회 충북도지회장, 민대기 오리협회 청주지부장, 이영우 오리협회 진천지부장 및 오리 사육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단합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다.

이날 박순만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가축질병, 지자체·A방역 규제 강화 등의 당면현안으로 오리산업은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단합의 힘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진 사장은 “주원산오리는 철저한 품질관리 및 소비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통해 탄탄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농가와외 상생발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사 발전을 위한 유공자 및 우수농가·직원 시상식도 열렸다

